

眞正한 丁茶山 研究의 길 (十)

(아울러 茶山論에 나타난 俗學的 見解를 批判함)

天台山人

八, 結語

茶山の 學術은 徹頭徹尾 □詳한 考證으로써 一貫하였었다. 「考證學」은 經傳에 關한 것만 아니라 先生의 考證學은 차라리 「日用事物」에 關한 모든 學術에 關한 것이었다. 經傳에 關한 考證은 차라리 □이데오로기의 時代 進展에 伴한 新時代的 合理化가 아닐가 한다. 그리고 茶山에 잇서서 얼마큼 더 學問을 體系化시켰으며 冷靜한 客觀的 批判이 잇섯는가를 아울러 보여주지 않는 「考證學上의 茶山論」은 茶山の 考證學的 眞面目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

그 自身은 그 時代의 叛逆兒였다. 그는 兩班 出身이면서 兩班을 미워하였다. 그 보답도 그는 舊制度의 모든 殘滓物을 怨讐스럽게 생각하였다. 그 모든 著述이 이를 雄辯으로 말하고 있다.

그는 封建崩壞의 모든 責任이 田制의 破綻에 잇다고 看做하고, 우선 이의 改革을 主張하고 其他 政治的, 社會的 諸般 施設의 改革을 主張하였다. 그 改革은 다른 나라의 國□變革처럼 急激한 飛躍이 아니라 漸進的으로 長時日에 成功시킬 것을 말하였다.

土地制度 郡縣制度의 改革 後에 重大한 것은 이에 附隨한 稅役理論은 姑捨하고

1, 教育에 잇서서 從來의 詩賦表策을 中心으로 한 科擧制度를 버리고 우리 的 現實生活에 卽하여 敎育하며 또 이로써 人物을 考選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到處에 科擧制度의 腐敗를 말하고 鄉校書院의 弊害를 列擧하였다.

2, 刑罰에 잇서서 責任을 在上者에게 돌려서 反省시킨 것이다. 茶山の 理論대로 하면 盜賊의 蜂起도 「社會」의 罪요, 民亂의 □出함도 制度의 선물이라는 自由스러운 見解를 가졌었다. 『刑典六條』와 『欽欽新書』에 이런 表現이 만다.

3, 上述한 바 가티

民本主義의 見解 미테 모든 制度를 改革하고 商工業 發展, 市民社會의 擡頭

를 將來할 新時代의 建設을 꿈꾸고 工曹에 利用監을 두자는 創案을 세운 것이다.

4, 新舊社會交□의 늪다란 展望臺에서 맞당이 가지고 잇슬 社會의 矛盾과 葛藤을 잘 對照, 看破하였다. 그에 依하면 詩賦表策의 講讀도 溫突夜話 마찬가지 罪惡으로 보고, 日用事物에 卽지 아니한 民衆生活에 實益 업는 모든 行動은 모다 罪惡이라고만 본 것이다.

舊社會의 崩壞의 이데오로기에 對한 反抗과 新社會의 建設에 對한 熱情이 가심에 불타올르듯 할 때 表面 儒學者로서 刑曹參議로서 康津 十九年の 귀양사리를 하지 안흐면 안되게 된 때 그의 時代的 先覺者로서의 苦悶이 얼마나 **깁**슬 것인가?

그의 呪願에는 아즉도 釗國의 迷夢에 깁줄 물으는 頑固들이 에워싸고 잇섰다. 洪樂安, 李基擎은 오날로 보건대 무슨 妖魔였드나, 當時에 젊은 茶山을 辱보이든 몇 萬의 「洪樂安」(實力을 가진 當路者)들도 時代의 壓力에는 어이 할 수 업고 畢竟은 새로 오는 밝은 것이 勝利를 하고야 말었다. 茶山의 世界觀은 마침내 움죽이지 안헸다. 아니 事物에 對하여 뚜렷하게 正當하게 認識할 能力을 가진지라 所見에 疑惑이 잇슬 수가 업섰다. 그는 새로운 世界에의 飛躍하기까지 時日이 멀은 것을 알고 自己의 抱負가 實施될 수 업슴을 알자 꾸준하게 工夫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하여 自己의 世界觀을 中心으로 地理, 歷史, 博物, 法制, 經濟.....모든 것에 새로운 一家見을 보여주었다.

벌서 한 時代가 流轉하여 왔다. 인제는 茶山의 꿈꾸고 그리든 그 時代도 世界歷史에서 閉幕하려 하거늘 아즉도 茶山夢에 깨지 못한 頑固들이 茶山을 그대로 復興하고자 하니 어이하리요! 우리는 單純한 古典復興에서 맞당히 一步 前進하여야 할 것이다.

附記 元來는 「新聞과 學術論文」이라는 詩感을 쓰랴든 것이 「茶山小考」의 散漫한 이 **劣力**으로 變한 것을 謝한다. (끝)